

아래의 글은 전체 교회의 월간 칼럼에 쓰인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 서기 Gradye Parsons 목사님의 글입니다.

진주빛 손잡이의 권총

2011 년 2 월

저의 아버지 서랍장의 가장 윗 단에는 진주빛 손잡이의 권총 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안관을 지내셨던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권총은 그 서랍장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공장의 직원들 집들에 총질이 가해졌을 때에도, 그 총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디. 제가 살던 작은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였을 때에도 그 총은 서랍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디.

저와 제 동생이 비비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장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디. 목표물을 가지고 말입니디. 어떤 살아있는 물체를 쏜다는 것은 마치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매우 빠른 동작을 의미합니디. 나중에 우리는 스물 두 자루나 되는 장총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살아 있는 물체를 쏘는 법칙은 마찬가지로였습니디. 더 많은 총을 가진다고 하여도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권총을 가지고 쏘는 법을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디.

사십 년 전에, 제 아버님께서는 2010 년도 219 차 미국 장로교 총회의 "총기 폭력과, 복음의 가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들의 모집" 이라는 부제를 가진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이미 실천하시고 계셨습니디. 그 부제는 시민들과, 사냥꾼들과, 심지어는 총기 사용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총기 사고 방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총기 사고를 줄이는 것에 관한 제 아버지의 접근
방법은 총알이 장전되어있는 권총을 절대로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사고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물체를 쏘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농장 근처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아이들이 성질을 건드리면,
아이들을 공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늘 순하였습니다. 마음이 크신 할머니는 그
개를 먹이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기 전에, 그 개를 처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의 할머니의 오래 된 엽총을 가지고 나가셔서, 너도 밤나무 아래서 그
개를 쏘서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담긴 그 표정은 그 후에도 저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삼십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총에 대한 교훈은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권총은 아직도 서랍장에 있습니다.